

# 클로저 이상웅

By Choi Hyun <653>



\* '클로저 이상웅'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11일(수요일) 음력 9월 30일

<b>쥐</b>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 진눈개비, 혼란. 운세: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극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오늘은 모일로서 토끼의 날이다. 쥐띠가 토끼를 만나면 유해살이자 자포형으로 풍파가 일어난다. 쥐는 찬 물이요 토끼는 바람이니 북풍, 냉풍에 파도가 일게 되니 풍파이다. 여기서 물은 독이 있는 물이고 병든 물이다. 여기에 형살이 가미되니 남자는 비노기 계통의 질병을 여자는 부인병을 조심해야겠다. 길방: 서	<b>소</b>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으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소띠생은 머리를 써서 기발한 묘책으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당할 수도 있는 날이다. 오늘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동쪽방향에 사는 사람과 초록색계통의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길방: 남
<b>호랑이</b>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락구름, 가시밭길. 운세: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근신하여야 한다. 때에 맞는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풀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오늘은 고독하며, 반복되는 일이나 중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놀랄만한 결과도 얻을 수 있는 날이다. 의외의 금전수익이 있을 수 있으나 독식할 수는 없다.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다. 빛을 갈을 수 있는 날이다. 길방: 남	<b>토끼</b>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 파도, 우왕좌왕. 운세: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끝이 위기는 극복 되었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토끼띠가 토끼띠를 만났으니 자중지란을 조심해야 한다. 우왕좌왕하기 쉽고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 한 가지 일에 매진 못하고 이것 저것 했다 저것 하는 날이다. 또 토끼는 바람을 의미하니 토끼와 토끼의 만남은 강풍을 의미한다. 길방: 북
<b>용</b>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쾌청, 힘찬 하루. 운세: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이따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판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오늘은 유해살일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지름길을 찾고 싶은 날이다. 인생행로는 목적지를 향한 긴 여정의이다. 그 긴 여정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길보다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옳겠으나 그 방법을 아는 것은 쉽지 않다. 길방: 남	<b>뱀</b>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 비바람, 힘들다. 운세: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끈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실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전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것이다. 자제하라. 자제하라. 뱀띠생의 마음은 큰 뜻을 가지고 교묘한 아이디어로 실력자를 움직여 실리를 쟁취하려는 날이다. 그런데 오늘은 토끼날이다. 토끼는 슬픈 나무를 의미하며 뱀은 불을 의미한다. 불을 피우기 위해 쪼든 나무를 쪼개고 사용한다는 경우이다. 길방: 동
<b>말</b>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 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계중의 취미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은 토끼날이다. 토끼는 바람을 의미하며 말은 불을 의미한다. 풍화의 날이다. 매사에 급히 서두르다 실패할 수 있는 날이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매사에 임하라. 또 오늘은 도화의 날이기도 하다. 이성문제, 탈선을 조심하라. 길방: 동	<b>양</b>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가을비, 떠나고 싶다. 운세: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저금년에 불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라. 오늘은 토끼의 날이다. 양띠생이 토끼를 만나면 처음에는 좋으나 중도에 항상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이유는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무리익은 기운을 바탕으로 하여 결실의 탐을 쌓는 형상이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행동하라. 길방: 남
<b>원숭이</b> 행운색: 노랑	오늘의 마음: 맑음, 권태롭다. 운세: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오늘은 토끼날이다. 원숭이띠는 열기왕성하여 무언가 시작하려하는 기운이 강해져 토끼는 브레이크를 거는 형상이다. 오늘 원숭이띠는 일하기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저 먹고 자고 개기고 싶은 날이다. 길방: 중앙	<b>닭</b>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 해, 번개, 갈등. 운세: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의 뜻이 실현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 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리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이룬다. 오늘은 토끼날로 재실일이다. 닭은 토끼를 만나면 부딪친다.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제까지 잘 나갔던 사람은 흥한 날이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흥으로부터 벗어나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돼지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좋겠다. 길방: 북
<b>개</b>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싸늘, 외롭다. 운세: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화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본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 부리지 말라. 오늘은 토끼날이다. 토끼는 도화로서 자신의 능력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남에게 보여주려는 기운이 강한 반면, 개는 화계 즉, 자신의 재능을 가리고 덮어 버리지 않게 하려는 기운이 강하다. 개띠생은 음이나나 영화감상 등을 통한 휴식이 도움 되었다. 길방: 남	<b>돼지</b>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 쾌청, 상쾌. 운세: 의욕이 증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돼지띠는 자살로서 움직이려는 기질이 강해져 오늘 토끼날은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형상이다.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며 특색하게 된다. 진급하게 되며 우월한 위치에 등극하게 된다. 오늘의 출장근무가 잘 성사되어 내일은 보상받는 날이 되었다. 길방: 동

## 강주현의 퍼즐월드

(큐미디어 게임) play스토어-앱-인기무료-검색창에서 경품날말-난수표-숨은그림찾기-스타와사다리타기-아구스도쿠-오늘의운세(솔광)-그림영어퍼즐(영문세)을 쳐주세요. 게임 즐기고 경품 받는 재미가 끝내줍니다. www.매지스도쿠.kr 02-493-5956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스도쿠정답**

4	2	1				8		
			7	4	8			
4		7	8				1	
		1	5				9	
7	3		6		8	1		
		2	7					
1	6		8		4	5		
3		8	1					
1		6		9			8	
	6			1	7			

## 유머

**꽃개**

회기를 귀에 댄 채 서 있다. 해도 너무 한다 싶어 삼순이가 부스를 벌컥 열고 말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지 않을 댐사람에게 양보하 시죠.”

이 말에 남자가 헛웃 삼순이를 보더니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지금 통화 중입니다.”

“통화 중이라뇨?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계속 수화기만 들고 있으면서!”

“지금 마누라와 냉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계시**

한 정치인이 기도 중에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

“비 오는 날 우산 쓰지 말고 속옷 바람으로 대대로 나가라. 그러면 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느니라.”

며칠 후 비가 오자 남자는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는 하느님에게 따졌다.

“하느님, 어찌하여 계시를 들려주지 않으십니까? 나만 바보가 된 건 아닙니까?”

그때 다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다면, 제대로 나의 계시를 들은 것이니라.”

**지금은 냉전 중**

삼순이는 벌써 30번째 공중전화 부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부스 안에서 한 분이 아무 말 없이 수